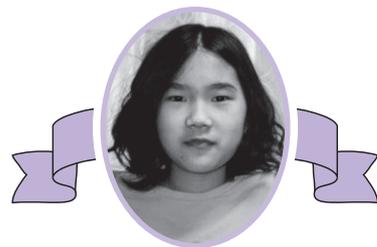


# 동상





##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국토



여예령 | 서산 성연초등학교 5학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사람이 퍼뜨리는 전파력이 워낙 세다보니 모든 생활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식당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민이고 매일매일 집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엄마들은 직장 다니며 아이들 학업까지 신경 써야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각 가정에서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게 된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고 밖에 나가더라도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면 일회용 그릇으로 모든 음식이 배달된다.

얼마 전에 엄마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유난히 커다란 재활용 주머니가 분리수거 공간 밖에 따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큰 주머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병들이 넘쳐 밖에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경비아저씨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셨다.

엄마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사를 하고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라고 하자 경비아저씨께서는 “요즘은 다들 집에서 밥을 먹으니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셨다. 유난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있었다. 각 가정에서 배달시켜 먹은 음식, 그리고 음료수, 물 플라스틱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동네에서만 이 정도로 많은데 우리 아파트 전체 아니 전국의 쓰레기는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가질 않는다. 이 많은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나는 이번 국토사랑 글짓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버리고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다.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제는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 분리수거만 잘 하더라도 환경을 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환경을 되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지금 막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큰 재앙이라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 걱정이 되었다.

플라스틱은 썩어 분해되는 기간이 50~80년, 일회용 기저귀는 100년 이상, 알루미늄 캔은 80~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 그만큼 넓은 땅도 필요한데 현재 많은 양의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 중에는 1978년 난지도 매립장이 있다고 한다. 15년 동안 서울

수도권 쓰레기를 이곳에 집하하여 1993년에 거대한 인공산이 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침출수 처리, 상부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 4가지의 공사를 통해 버려진 땅 난지도가 되살아나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른들의 노력과 수고로 아직은 깨끗한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상상해 본다.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해서 쓰레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말이다.

인간에게 해롭지 않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지구가 더 오염되고 병들기 전에 빨리 되살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로 난 분리수거도 잘하게 되었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 전에 나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른들의 노력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국토에 살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의 우리가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물려주어야 한다.